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觀光地 住民의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 知覺에 관한 研究

- 濟州道 城山地域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觀光開發學科

金 觀 洙

2007年 8月

觀光地 住民의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 知覺에 관한 研究

- 濟州道 城山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崔 容 福

金 觀 洙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金觀洙의 觀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大學院

2007年 8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지연성에 대한 고찰	6
1. 지연성(地緣性)의 의의	6
2. 지연성 측정의 문제점	13
3. 지연성에 관한 선행연구	13
제2절 관광영향 지각에 대한 고찰	15
1. 지각	15
2. 관광영향	19
3. 관광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30
4. 관광영향 지각	32
제3장 연구설계	40
제1절 분석의 틀 및 측정항목 개발	40
1. 분석의 틀 구성	40
2. 측정항목 개발	41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41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상관관계	42
2.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	42
1. 조작적 정의	42
2. 설문지 구성	44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4

제4장 실증분석	47
제1절 인구통계적 변수의 일반적 특성	47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47
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48
1. 신뢰도 분석	48
2. 타당성 분석	51
제3절 가설 검증	55
1. <가설 1>의 검증	55
2. <가설 2>의 검증	58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61
1. 분석결과	61
2. 시사점	62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6
ABSTRACT	73
부 록	
설문지	

표 목 차

<표 2-1> 지연성의 개념정의	11
<표 2-2> 지연성의 정의와 측정항목	12
<표 2-3> 관광영향척도	22
<표 2-4> 관광영향 지각 요인추출 항목	39
<표 3-1> 설문지 구성	44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47
<표 4-2>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신뢰도 분석 결과	48
<표 4-3> 관광영향 지각 신뢰도 분석 결과	49
<표 4-4>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분석 결과	52
<표 4-5> 관광영향 지각 요인분석 결과	53
<표 4-6>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중 장소의존성과 관광영향 지각 회귀분석 결과	55
<표 4-7>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중 장소정체성과 관광영향 지각 회귀분석 결과	55
<표 4-8>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중 공동체의식과 관광영향 지각 회귀분석 결과	56
<표 4-9> 출생지와 관광영향 지각 T검증 결과	57
<표 4-10> 혈통과 관광영향 지각 T검증 결과	58
<표 4-11>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경제적 부분의 검증 결과	58
<표 4-12>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사회·문화적 부분의 검증 결과	59
<표 4-13>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환경적 부분의 검증 결과	59
<표 4-14> 가설 채택 여부의 정리	61

그림 목 차

<그림 2-1> 지각의 과정	18
<그림 2-2> 사회교환이론 모델	26
<그림 2-3> Doxey의 Irridexahepf	37
<그림 3-1> 분석의 틀	4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관광개발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인 향상 및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큰 지역발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에 주목하고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최승담, 1995).

관광개발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가적 측면에서 편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Pearce, 1996). 그러나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유대관계와 지역주민의 지각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받게 되고 삶의 중요한 측면, 즉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에서는 관광개발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편익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가 강조되어 왔다(Ap, 1992; Reed, 1997).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관광이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생태관광·녹색관광 등 대안관광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외는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반대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송재호, 1998).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

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관광목적지로서 지역사회는 관광을 위한 총체적 환경으로 관광객의 경험·만족·재방문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는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관광목적지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산 및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부정적 지각은 태도로 이어져 관광객의 만족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현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사회가 내생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외부의 변화에 휩싸여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방향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 영향지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관심과 애착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지역사회의 지연성은 지역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된다(Kasarda and Janowitz, 1974). 지역사회 발전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연성을 잃어버린다면 관광개발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지연성(地緣性: attachment level)은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고의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광개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관광개발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및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Inskeep, 1991). 따라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관광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지연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연성과 영향지각, 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광분야에서 진행된 지연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소비자인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갖는 지연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관광객이 특정 관광목적지를 선호하는 것은 목적지의 장소적 특성에 대한 애착과 상징적이고 감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illiams et al, 1995; Kaltenborn, 1997).

그러나 궁극적으로 관광개발의 목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관광상품의 공급자인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지연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여 관광영향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cCool과 Martin(1994)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지연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심을 지역사회로 확장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지각간의 관계

에 대한 결론이 분명하지 않음을 밝히며 부가적인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연성에 대해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념의 정립과 실증적인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거주기간 또는 관여도 척도,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연성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연성 측정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표준화된 측정척도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광이 도입된다는 것은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등 다면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관광개발 과정에 변화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장성수,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하였던 지역주민의 지연성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지각이 가지는 관련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관광지 주민이 가지는 지연성과 관광영향지각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광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지연성과 관광영향지각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광지를 개발할 때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라 어느 부분에 영향의 무게가 주어지는지를 깊게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관광영향의 지각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가운데 관광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지연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지연성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광영향지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면 다음 두 가지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 관광지 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지각의 각 요인이 가지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관광영향지각의 요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T검증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관광지 주민이 갖는 자연성 요인과 관광영향지각의 각 요인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연성 요인과 관광영향지각의 요인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연성의 요인과 관광영향지각의 요인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관광지 주민의 자연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성과 관광영향지각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대상지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 한정을 둔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개발이 예전부터 지속되어 계속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관광개발이 추가로 진행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및 섭지코지 주변으로 한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지인 성산지역의 총 면적은 107,672km²이며, 총 가구수는 5,808세대이다.

그리고 인구는 15,056명이며, 이중 남성은 7,651명이며, 여성은 7,405명이다.

이중 외국인인 남성이 32명, 여성이 18명이 거주 중에 있다. 그리고 행정적인 면을 보면, 성산읍의 행정리는 총 14개이며, 법정리는 11개가 있다. 그리고 사업별로 살펴보면, 성산지역에는 200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011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숙박 및 음식업이 288개 업체, 도소매업이 235개 업체, 농·수·축·임업이 65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기상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1851mm이며, 연평균 온도는 약 15도이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의 50%가 7,8,9월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20부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07년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175부의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하였다. 예비조사는 제주도내에 위치한 성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본 조사는 예비조사 후 미비사항을 점검한 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실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지각의 각 요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셋째, 수집된 설문을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각 영향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고, 분석결과와 비교연구 실행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연구설계, 제4장 분석 및 결과, 제5장 결론 등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볼 때 총 12개의 절로 구분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연성에 대한 고찰

1. 지연성(地緣性:attachment level)의 의미

고대 프랑스어의 'atacher'에서 파생된 'attachment'는 그 사전적 의미로서 '단단하게 고착시킴', '사물이나 사람의 일부분이 됨', '감정으로 하나가 됨'(Webster's Dictionary, 1994) 등으로 해석된다(장성수, 2001 : 재인용).

지연성의 개념은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즉, 관광자원개발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고, 또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영향인자로서 지역주민의 환대정신이고 보면 중요한 이슈(issue)인데, 아직까지 관광분야연구에서는 그다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몇 편 있지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도입·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성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Stokols & Shumaker(1981)는 이 'attachment'를 환경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환경과 인간사이에서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의존상태'(the state of place dependence)라고 정의한 바 있다. Altman(1992)은 이를 가리켜 환경과 인간행동사이에서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인지(thought, belief, knowledge)와 실제적 적용(action and/or behavior)이라는 양면이 통합되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전계논문 : 재인용).

거소이 등(Gursoy et al)은 지연성을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 감정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유대감 내지는 결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헤이(Hay)는 지연성의 개념을 장소감(sense of place)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변수로, 윌리엄스 등(Williams et al)은 의존성, 정체성, 표현, 중심성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연성의 개념은 위락지와 감성정도는 정서적 유대를 지닌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을 측정함으로써, 위락자원의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원주민과 거주기간이 짧은 지역주민간의 지연성 수준의 측정방법을 제시한 Um & Crompton은 지연성을 주민들간의 공동체 정착수준을 파악하는 중심요소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연성을 장소의존성, 중심성, 가시성, 장소정체성, 장소감의 복합적인 것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소의존성에 대하여 스토클과 슈메이커는 인간의 욕구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장소의 잠재성과 현재의 장소가 욕구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 이동가능한 다른 장치와 비교되는 방법의 평가가 결부된 형태로서 정의하였다.

둘째, 중심성은 자기자신을 어떤 장소에 위치시키고 그 장소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은 장소에 대한 감정과 과거에 대한 감정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셋째, 가시성이란 눈에 보이는 경관을 의미한다. 가시성은 공동체감정, 거조환경,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체감정은 구성원들의 감정, 욕구의 충족, 공유된 감정의 연계, 충성심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공동체 감정은 건물과 지역의 공간계획과 연계된다. 건조환경은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건물이나 공간계획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도 인간의 경험이 투영되고 집단적 기억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친숙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공간관계는 장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소정체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를 통한 여가문화는 공동체의 집결을 강화시키고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공동운명체임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함께 하는 놀이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및 의식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장소정체성은 프로센스키(Proshansky) 등이 물리적 장치들이 인간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장소정체성을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지들로 구성되는 자아정체성의 하부구조로 보고 있으며 인지의 요인을 기억, 생각, 감정, 태

도, 가치, 선호도, 의미, 그리고 행위나 경험에 대한 개념들로 설명하고 있다. 프로센스키는 만일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한 정체성들(성, 사회적 계급, 인종적 차이, 직업, 종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는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장치들에 의한 장소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장소정체성은 환경과 관련된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신념, 선호도, 감정, 가치관, 목표, 행동습관이나 기술 등의 복잡한 패턴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관련시켜 개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자아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의미하며 자아정체성의 종속적인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소정체성은 이 자아 정의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애를 통해서 겪게되는 수많은 물리적 환경들 속에서 폭넓은 경험들이나 그들과의 관계들이 인간의 자아발달 과정에 긴밀하게 작용하여 장소정체성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인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자아의 한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소정체성은 국립공원이 우산을 상징하듯이 개인의 정서적 유대(ties)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의미에서 장소의 가치는 개인들, 집단들, 혹은 사회에 의해 할당되며 반드시 장소의 물리적 속성과 그 의미 사이의 강한 일치성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장소적 지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어느 특정연구의 관심대상자의 지리적 혹은 개념적 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소에 대한 지연성은 특정입지, 특정지역 혹은 특정심리를 포함하여 여러 수준에서 밝혀질 수 있다.

장소정체성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프라이드(Fried)는 공간적 정체성(spatial ident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공간적 정체감을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적 장치들과의 접촉을 통한 중요 경험들을 감각적 또는 관념적으로 통합한 것을 의미하여 이것은 공간적 기억들, 공간적인 상상력, 현재의 행위에 대한 공간적 요인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공간적 정체성은 인간의 기능수행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다.

에릭슨(Erikson)도 자아정체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간적인 요인들을 포함시키는데 프라이드의 공간적 정체성의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은 저마다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특정 정체성들 속에는 그것이 수행될 수 있는 공간의 특징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소정체성은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독특한 사회화 경험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물리적 장치들(예컨대 해변과 내륙관광지, 문화적 및 자연적 관광지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공통되는 경험들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광지 환경은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건축된 환경인데, 이러한 건축환경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경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환경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장소정체성은 그것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분석도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배제한 물리적 장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소 정체성은 개인의 여타 종속 정체성의 발달과 표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인간과 물리적 장치와의 상호작용 과정은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된다. 그러나 인간과 그의 물리적 환경은 시간과 더불어 쉽게 변하게 되므로 개인의 여타 종속 정체성들처럼 이들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선호도, 가치, 기억, 태도 등의 조직은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변화되는 심리적 구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현재 모험적이고 자극적인 관광지를 매우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관광지가 변하고, 자신의 사회, 경제적 생활양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그러한 생각은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장소정체성은 규범적인 면과 독특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오늘날 모든 관광지 환경은 하나의 좁은 공간에서부터 대규모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규범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은 동일 문화권 속의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장소정체성들은 개념상으로는 의미와 공간의 사용에 있어 규범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소정체성들은 사람마다 신체적 특성, 이동능력, 인지능력, 사회화의 경험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특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소 정체성들은 분화의 정도, 복잡성과 통일성의 정도, 집단 구성원들 간의 연령, 직업, 지적수준, 기타 중요한 사회적 특성들의 차이에 따라 구조적 특성 면에서 크

게 달라진다.

이밖에도 로스 유젤(Ross · Uzzell)은 지연성을 주거환경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된 표현과 장소정체성의 규칙에 지배받는 것으로, 맥앤드류(McAndrew)와 같은 학자는 지연성을 본질적으로 고유한 것이며, 개인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 산악, 사막과 같은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발생하며, 개발장소가 적절한 특성을 갖는 한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연성 개념의 논의의 출발점인 지역이라는 개념은 인접지역과 그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달리하는 동질적 공간이다. 지역은 국토의 일부이면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 상호간의 높은 일체감을 갖는다. 한국의 선거에 관한 연구결과 지연(地緣)이 후보자 선택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의 하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역의식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성에 근거한 집단의식이라고 규정되었을 때 지역의식이란 모든 시대와 사회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식이란 어느 한 시대의 유물로 사라져 갈 요소가 아니며 인간사회의 존속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지역의식은 항상 부정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의식을 크게 두 가지,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단위와 관련지어 전개되는 지역의식은 마을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공동체의식과 각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지방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은 마을 성원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표 2-1 > 지연성의 개념정의

연구자	개 념 정 의
Stokols-Shumaker (1981)	지연성은 환경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환경과 인간사이에서 지각장소에 대한 의존상태(the state of palce dependence)
Um & Crompton (1987)	주민들간의 공동체 정착수준을 파악하는 중심요소
Williams-Roggenbuck (1989)	위락환경에 대한 지연성은 활동을 위한 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자원의존성과 장소가 갖는 감성적인 또는 상징적 의미의 정도를 말하는 자원정체성을 근원으로 한다. 지연성은 필수적으로 환경에 대한 선호형태 유대를 포함
Altman (1992)	환경과 인간행동 사이에서의 인과관계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인지와 실제적 적용이라는 양면이 통합되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
Willians et al (1995)	지연성은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의존성·정체성·표현·중심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장성수 (1995)	지연성은 지역토박이와 최근 이주한 거주자 사이의 차이정도를 지적하는 개념으로서 대개 본인 출생지·부모출생지·거주기간 등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보수성과 토착성이 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임
Ross-Uzzell (1996)	지연성은 주거환경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된 표현과 장소정체성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음
Robert Hay (1998)	지연성은 장소감(sense of place)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변수이고 장소감의 개발에 지연성이 응용됨
McAndrew (1998)	지연성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것이다. 개인의 어떤 지역이나 도시·산악·사막과 같은 환경에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한다. 개인의 지연성은 개별 장소가 적절한 특성을 갖는 한 여러 다양한 곳에서 만족할 수 있음
Williams (2000)	지연성은 위락지와의 감성적 또는 정서적 유대를 지닌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을 측정함으로써 위락자원의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음
박미정 (2001)	지연성은 특정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그 연루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시·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구분해주는 물리적 특성들, 활동, 의미들의 복합으로 장소정체성, 복합성, 가시성, 장소의존성, 중심성, 장소감으로 구성됨
Goudy-Jurowski (2002)	지연성은 친밀감, 감정,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유대감·결속력으로 정의

자료 : 박미정(2001), “지역주민의 지연성이 메가이벤트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p. 12-13.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연성의 개념은 특정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그 연루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시·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구분해주는 물리적 특성, 활동, 의미들의 복합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표 2-1>와 <표 2-2>에서 제시하는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 나름대로 정립시켜 본 견해이다.

<표 2-2> 지연성 정의와 측정항목

연구자 (년도)	지연성	
	개념정의	측정항목
Daniel R. Williams (2000)	지연성은 위락지와 감성적 또는 정서적 유대를 지닌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을 측정함으로써, 위락자원의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존성 · 장소정체성 · 장소감
Francis T. McAndrew (1998)	지연성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것이다. 개인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산악·사막과 같은 어떤 종류의 환경에 의존하게 될 때처럼 말이다. 개인의 지연성은 각 장소가 적절한 특성을 갖는 한 여러 다양한 곳에서 만족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에 대한 열망 - 가장가족에 대한 만족
Robert Hay (1998)	지연성은 장소감(sense of place)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변수이다. 따라서 장소감의 개발에 지연성이 응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상태 · 라이프사이클(연령단계) · 동반거주유형(결혼, 양육형태 등)
C. L. Twigger-Ross & D. L. Uzzell (1996)	지연성은 주거환경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개인의 표현된 동일시하고 말할 수 있는 장소동일시와 장소정체성의 규칙에 지배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성 · 자기존중 · 자기효율
Daniel R. Williams & B. Scott Anderson & Cary D. McDonald & Michael E. Patterson (1995)	지연성은 의존성·저체성·표현·중심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 4가지 용인은 활동선호도, 중요도, 관여, 경험의 처짐(환경 대 활동) 그리고 그곳에서의 과거경험과 관련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성 · 정체성 · 표현 · 중심성
Daniel R. Williams & Joseph W. Roggenbuck (1989)	위락환경에 대한 지연성은 활동을 위한 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자원의존성과 장소가 갖는 감성적인 또는 상징적 의미의 정도를 말하는 자원정체성을 근원으로 한다. 지연성은 필수적으로 환경에 대한 선호형태 또는 유대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 자원의존성 · 장소무차별

자료 : 장성수(200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지연성 척도”, 2001년 관광학술 심포지엄 및 정기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p.16.

2. 지연성 측정의 문제점

이상과 같이 지연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는데, 지연성을 단순히 거주기간으로 측정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행연구의 효시는 장성수(1995)가 남제주군 6개 마을주민의 지연성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Um & Crompton의 견해를 원용하여 지연성을 출생지(birthplace), 혈통(heritage) 및 거주연한(years of residence)의 조합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장성수(2001)는 문화관광자원 개념의 조작화를 위하여 지연성 척도가 원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신겸(2001)은 하회마을 지역주민의 애착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연성을 애착도로 정의하고,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정의하면서 의존성, 정체성, 사회적 친분의 세 개 항목으로 측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충기(2003)는 강원지역의 카지노 개장에 따른 개장전후의 지역주민의 인식변화와 지지도를 연구하면서 지연성을 이 지역에 살고 싶음, 이곳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 이 곳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감수함,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 지역은 내가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임과 같은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특정장소와 연루된 지각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연성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적으로 볼 때, 광역적인 범위에서 보는 지연성 수준과 보다 좁은 범위에서 보는 지연성 수준간에 현격한 괴리감 내지 심지어 역전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마을의 주민들이 지각하는 마을내 명소(名所)와의 지연성 수준이 전국 단위의 명소에 비해서는 높을지라도, 시·도 단위의 명소에 비해서는 의외로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역 설정 상에서 야기되는 난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연구에서 시도해 온 바와 같은 지연성의 측정에는 각각 방법론상의 단점이 따른다. 즉, 요인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기본적

약점이 있다(채서일, 1999). 또한 거트만 척도(Guttman scale)의 경우도 문항들의 단일차원성에 대한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단일차원성의 가정아래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을 갖는다(홍종선·박옥희·최창현, 1997)

더욱이 지연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출된 요인들 간에 어느 만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유사연구의 자료축적이라는 취지에 따라 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일단의 심리 측정 문항들이 원용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 또는 지역들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간과해 버릴 가능성 또한 높다(장성수, 2001).

3. 지연성에 관한 선행연구

프렌스키는 지연성을 특정장소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감정적 경험과 인간과 환경과의 교감을 통한 정체성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측정하였고, 휴먼(Hummon)은 지연성을 지역정서(community sentiment)로 규정지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도구로 삼았으며, 롤스(Rowles)는 지연성을 소속감으로 규정지어 주민의 지역사회와의 일치정도로, 또한 차우라(Chawla)는 지역사회가 주민의 정신적 근원임을 나타내는 원류성(rootdness)으로 해석함으로써 지연성의 측정을 구체화하였고, 로스(Ross)는 연속성, 자기존중으로 헤이(Hey)는 지연성을 거주상태, 연령, 동반거주유형으로 맥앤드류(McAndrew)은 원류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맥쿨(McCool)은 지연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사회의 거주기간과 둘째, ‘내가 이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면 나는 매우 슬플 것이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다.’의 2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로스키(Jurowski)와 같은 학자는 로저스 산악지역에 대한 지연성을 지역주민들의 감정으로 측정하고 있다. 연구에서 거트만 척도를 이용하여 7개 항목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과 긍정적인 느낌으로 구분하여 부정적 느낌은 3개 문항, 긍정적 느낌은 4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부정적 느낌은 ‘나는 이 지역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지역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지 않다.’이고, 긍정적 느낌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이 지역에 대해 감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의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 ‘나는 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재정적 희생도 감수 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성을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세 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제2절 관광영향 지각에 대한 고찰

1. 지각

지각(perception)이란 우리가 주변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대상, 사상(event), 그리고 행동을 지각한다. 일단 머릿속에 인상이 형성되면, 그것은 다른 인상과 결합되어 개개인에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형태로 조직화되어진다.

어떤 대상이나 제품이 지각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일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자극요인(stimulus factors)은 크기, 색상, 소리, 감촉, 모양, 주위환경 등과 같은 자극 그 자체의 특성을 말한다.

둘째로 인적요인(personal factors)은 감각작용(시력, 청력), 지능, 성격, 과거경험, 가치관, 동기, 분위기 등과 같은 여행자 자신의 변수 즉, 특성을 말한다.

자극요인과 인적요인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특정 여행광고나 프론트데스크 직원,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 대한 여행자의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두 가지의 요인 모두가 여행자의 총체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지각의 요인

(1) 자극요인

지각은 부분적으로 물리적 자극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세상을 대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대상 간에는 서로 구별되며, 그 대상을 나타나게 하는 배경과도 구별된다는 통합된 전체(unified whole-ness)이다. 이러한 통합된 전체성에 토대한 지각의 분석은 형태심리학자들의 일차적 관심대상이었다. 독일어의 게슈탈트(Festalt)란 말은 보통 形態(pattern)라고 해석되는데, 형태심리학자들은 감각의 형태화된 조직을 강조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은 조직화된 전체로서의 형태를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이 어떻게 형태로 조직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형태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형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법칙을 만들었다. 그 중에 네 가지는 유사성의 법칙(law of similiarity), 근접성의 법칙(law of proximity), 대칭성의 법칙(law of symmetry), 배경성의 법칙(law of context)이다.

(2) 인적요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환경 내의 대상에 대한 지각은 간단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자는 「개념적 모호성」(conceptual ambiguity)이 설령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그러나 개념적 모호성이 많은 물체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행과 여가의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Morgan and King : 1966, 37).

참회 화요일, 뉴욕시, 그리고 남태평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의미를 주고 있다. 스키, 캠핑, 등산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어떠한 사람도 비행기, 대형선박 혹은 자동차 등을 똑같은 방법으로 지각하지는 않는다.

관광과 여가의 영역은 복잡한 지각적 환경이기 때문에 대상, 활동, 사건 등을 지각하는데 인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현상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인적 요인에는 흥미(interests), 요구(needs), 동기(motives), 기대(expectations), 성격(personality),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 등이 있다.

2) 지각의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각과정은 고도로 선택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 직장, 도시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수많은 대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고 기억할 수 없다. 우리의 지적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일의 극히 적은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할 수 있다.

우리의 개인적 환경은 너무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지각적 노력을 경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관심범위와 즉각적 기억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상황을 특정한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지각이란 “자극에 대한 連逮的인 濾過過程이다.”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것을 다른 지각과 함께 해석 또는 통합하게 되며, 나아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상당기간동안 기억될 수 있는 것이다.

(1) 선택적 관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에 대하여 선택적이게 된다. 선택적 관심이란 지각적 방어(perceptual defense)의 한 형태이다. 선택적 관심(selective interest)은 비본질적, 무관한 것 또는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2) 이해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의도적이거나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각이란 「주관적 여과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자극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주위의 복잡한 환경에 대처하는 지각적 노력을 경제화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구, 흥미, 태도에 의해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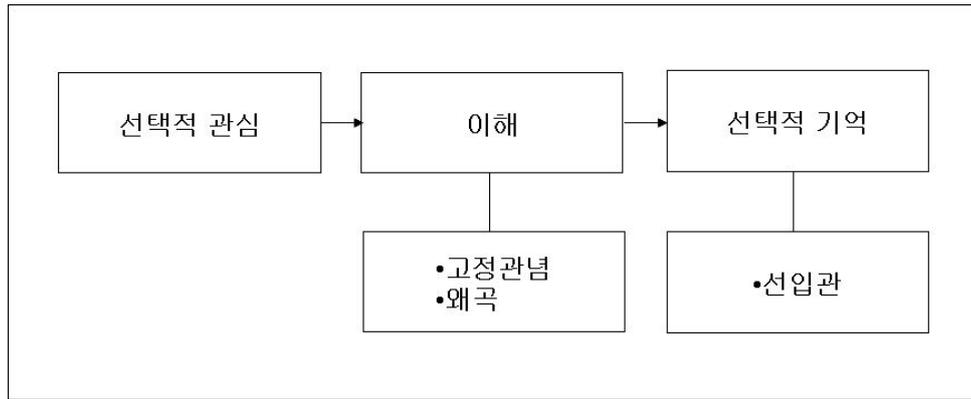
자극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 행동, 사건, 대상 등을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오래 전에 Walter Lippman은 이를 固定觀念, 즉 常同刑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이라고 명명하였다. 항공기의 일등석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업체의 회장이나 부유한 사회사업가, 또는 돈 많은 제트족(jetsetter)으로 분류되어진다. 고정관념은 사람이나 사물, 사건 그리고 행동을 사전 지각된 의미범주에 따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된 정보나 단서에 기초할 경우 사람들은 자극을 정신적 범주에 맞추게 된다.

자극속성의 일부를 과장하든지 아니면 축소 또는 무시하는 형태로 자극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자극을 자신의 선호와 신념과 더욱 일치시키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지각적 왜곡(perceptual distortion)이라는 心理機制를 통하여 자기의 지식, 신념, 그리고 선호와 일치하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선택적 기억

지각의 마지막 과정인 선택적 기억(selective retention)은 사람들이 지각한 정보가 일정기간 기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나 가치, 그리고 선입관과 관련된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한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관련이 없는 정보는 종종 쉽게 망각된다. 게다가 기억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우리의 태도, 선입견, 그리고 생활스타일과 일치할 경우 더 큰 정확도를 가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몇 가지 있다(Markin, Jr.:1974, 321).

선택적 노출, 이해, 선택적 기억은 우리의 先入觀(predisposition)에 의해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선입관을 강화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많은 촉진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의 신념을 이용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려 의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약간의 지각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림 2-1> 지각의 과정

자료 : 연구자 작성

본 연구에서 지각이란 관광개발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관심을 통하여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갖는 요인을 관광개발의 영향 중 경제적(긍정적·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긍정적·부정적) 영향, 환경적(긍정적·부정적) 영향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각과 태도를 명백히 구별하여 측정하지 않고, 지각과 태도의 개념을 서로 혼용하면서 조사·분석한 연구가 많다. Allen 외(1998)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지각을 파악하였으나, 지각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태도를 해석할 때 지각과 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Ap(1992)은 태도와 지각은 때때로 그 의미를 바뀌가면서 사용되고 있지만 태도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선유경향이나 행동경향을 표현하는 반면 지각은 어떤 대상에 귀속되는 의미로 표현되는 좀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유경향(predisposition)을 기술하는 용어로 태도 대신 지각(perception)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미상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김남조, 2000).

2. 관광영향

최근 관광영향(tourism impact)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을 매개로 하여 관광활동(김영양, 1991)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함하는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관광개발의 영향(impact of

tourism development)과는 동일한 용어로 정의(고동완, 1998)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영향은 유·무형의 모든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이며, 시간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종단적 결과이다. 그리고 관광영향지각(perceived tourism impact)은 피관광 대상인 지역주민(host residents)들이 받아들이는 관광현상의 결과들로 관광영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subjective judgement)에 따르는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동완, 1998).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느끼는 지역애착도와 관광영향은 관광개발이라는 지역의 물리적 영향과 관광이라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각하게 되는 긍·부정적 결과로 정의한다.

1) 관광영향의 개념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 교통의 발달,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중관광의 확산은 관광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광문화는 아직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 관광객의 유입이 관광지 지역주민으로부터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민창기, 1992).

관광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룹은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광의 주체인 관광자이며, 둘째는 관광기업, 셋째는 관광을 통해 여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 넷째는 관광지 지역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표성수 외, 1994).

먼저 관광자가 받는 영향은 관광지출로 인한 소비의 증대와 관광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보상(기분전환, 휴식, 경험과 교양의 축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기업은 손익계산에 의한 이익의 창출, 정부는 정책목표달성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이러한 관심을 뛰어넘는 보다 직접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본거지가 관광지가 됨으로서 그들이 받게 되는 영향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기 때문이며, 그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양은, 1997).

한 지역사회가 관광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방문자(관광자)와 지역개발, 경영 간에 균형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관광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

지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관광영향을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관광영향을 세 개의 범주 즉,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물리적 영향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를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라 하기도 하여 영향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구분한다(김기동, 1998).

따라서, 관광영향은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방문, 관광활동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광객,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상황에 따라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표 2-3> 관광영향 평가항목

연구자 평가항목		Pizam (1978)	Belisle & Hoy (1980)	Liu & Var (1986)	Miman & Pizam (1988)	Perdue, Long & Allen (1987)	Lankford & Howard (1994)	Haralam- bopoulos & Pizam (1996)
		경제적영향	긍정적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		○	○	○		○	○
쇼핑기회의 증가	○							○
고용기회의 증가			○	○	○		○	○
교통기반시설의 증가			○					○
경제에서 투자, 개발, 기반시설 개선			○	○	○	○		
전반적인 조세수입의 증가				○		○	○	
부정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증가	○	○	○				
	부동산 가격 상승	○	×					
	생활비용 증가			○				○
사회문화적영향	긍정적	레크레이션시설 이용 기회 증가	○	○	○	○	○	
		놀이 기회증가		○	○			
		치안유지의 질 개선	○					
		소방시설의 질 개선	○			○		
		삶의 질 증가	○			○	○	○
		다른 사회와 문화의 이미지에 대한 이해 증가	○		○	○		
	방문객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경험			○				
	역사적, 문화적 관람 수요 증가			○				
	문화교류 촉진		○	○				
	지역에서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 촉진			○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			○				
	도덕, 정직, 예의와 매너, 상호신뢰, 일에 대한 태도의 개선					×		

평가항목		연구자							
		Pizam (1978)	Belisle & Hoy (1980)	Liu & Var (1986)	Miman & Pizam (1988)	Perdue, Long & Allen (1987)	Lankford & Howard (1994)	Haralam-bopoulos & Pizam (1996)	
사회문화적영향	부정적	범죄/도둑/훼손의 증가		○	×		○	○	○
		범죄의 증가나 조직				×			×
		마약중독의 증가	○	○	×	×			○
		알콜중독자의 증가	○		○				
		밀수입의 증가		○		○			×
		매춘의 증가		○	○				○
		풍기문란(성적타락)의 증가				×			
		지역 자연의 개발 증가			×				
		관광지역에서의 쇼핑의 기피			×				
		오락이벤트의 입장권 구입이 어려워짐			×				○
		갬블링 등 불법적 게임 증가							×
환경적영향	긍정적	국립공원 등의 환경의 보존		○					
		생태적 쇠퇴의 방지			○				
		지역의 외관 개선					○		
		공공기반시설의 개선		×					○
	부정적	교통체증의 증가	○		×		○		
		쓰레기 증가	○		×			○	
		소음공해의 증가	○					○	
		야외 휴양지역의 혼잡증가	○		×		○	○	

주: 1) 응답자의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거나 평균값이 척도의 중간값 이상인 경우에 ○로, 측정에 포함되었으나 이 기준에 미달되는 항목은 ×로 정리됨.

2) 고동완(2000), 강신겸(2001)에서 재인용.

<표 2-3>는 관광영향을 하나의 척도로서 나타낸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지역주민과 상호 접촉을 하면서 그 결과 목적지에서는 관광영향이 발생하며 그 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 편익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관광개발의 수준이 낮은 상태이거나 관광객의 수가 적을 경우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느리지만, 관광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주민과 관광객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인식에 대한 변화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사회교환이론은 이와 같이 관광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절한 체계로 이용되어져 왔다. 이 이론은 사회적 관계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점의 사회심리학 이론으로서, 사회 관계대상들이 주고받는 보수(reward)와 부담(cost)에 관심을 갖는다. 보수는 관계로부터 얻는 것으로 특유성의 차원과 구체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특유성(particularism)의 차원은 어떤 보수의 가치가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의존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성의 차원은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보수들과 충고나 사회적 안정과 같은 비구체적 또는 상징적 보수들 사이의 구분을 내포한다. 부담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들이다. 이처럼 사회적 교환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관계의 보수들과 부담들을 계산해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설명하는 적절한 체계로서의 사회적 교환이론의 장점은, 이것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모두를 설명할 수 있고, 개별적 또는 집합적 수준에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동, 앞의 논문, pp.7~9에서 재인용).

Ap은 이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사이의 자원의 교환이 높고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불균형 관계라 하더라도 주민 행위자에게 높을 때 관광영향은 지역주민에 의해 긍정적으로 보여 지고, 자원의 교환이 균형에서 어느 한쪽이 낮거나, 또는 교환관계가 불균형일 때 관광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여 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은 사회 교환과정에서의 상호 불균형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사회적 기대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불균형적 관계를 부정적 인식의 근본이라고 보기도 한다.

2) 관광영향의 요인

(1) 관광의 경제적 영향

대부분의 문헌들이 긍정적인 영향, 특히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때, 관광의 경제적 영향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종단적(longitudinal)결과와 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Pearce는 지역개발에 대한 관광의 공헌을 설명하는 데는 관광의 경제적 일시적 효과만으로 불충분하며 발생론적 접근(genetic approach)을 요구한 바 있다.

관광개발로 인한 방문객의 방문이 그 국가 또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편익측면과 비용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광의 긍정적(편익)측면과 1차적 직접효과와 2차적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로 대별된다(김사현, 1985).

관광영향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소득발생, 고용창출, 경제구조개선, 기업 활동 촉진, 정부수입증가 등이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관광에 대한 과세의존, 인플레이션 유발, 지가상승, 수입성향증대, 생산의 계절성과 투자의 낮은 회수율, 기타 비용의 발생 등이 있다(Alister Mathieson and Geoffery Wall, 1982).

가. 경제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광의 경제적 영향은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창출, 국내 경제구조의 다변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 등이 있으며(김규호, 1996) 관광지출의 효과는 크게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유발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효과란 관광객이 최초로 그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로서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관광업자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며, 간접효과란 1차 지출이 그 지역 경제에 투입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생기게 되는 데 이들 집단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변우희 외, 1998).

유발효과란 관광수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경제 내의 호텔업주, 농민 등 가계부문의 임금이

향상되면 이들에 의해 지역경제에 대한 소비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지역 내 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기회 창출 등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유발효과이다(김사현, 1997).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산업들이 혼합된 복합체이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집단과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승수효과에 의한 분석,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다(변우희 외, 1998).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으로 Airey는 국제수지에 대한 관광영향을 1차적 효과, 2차적 효과, 3차적 효과로 나누었다. 1차적 효과는 한 국가 내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지출과 해외에서의 내국인 관광객 지출에 따른 효과로서 통화의 직접적인 유입과 유출을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2차적 효과는 관광객 지출이 경제를 통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이며, 3차적 효과는 관광객의 직접지출에 의하지 않은 통화의 흐름에 따르는 효과로서, 관광활동에 의해 발생한 투자기회 등이다.

소득발생에 따른 승수효과는 관광객의 지출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출과 소득을 발생하는데 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일련의 소비활동은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킨다.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소득의 재소비를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관광객에 의해 소비된 수입상품과 서비스의 양,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비경향 등이 승수효과와 관계가 있다. 고용창출은 개발도상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을 때, 고용에 대한 관광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에 있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유발고용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관광은 지역개발을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관광산업을 선택하면, 개발이 잘 된 지역보다 훨씬 큰 주민복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관광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관광사업으로부터의 정부는 관광업체 종사자, 관광사업체, 입장료, 봉사료 등에 부가되는 직접세, 관세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 정부소유 관광관련업체로부터의 수입, 이자수입, 차관의 회수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제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관광에 대한 과잉의존은 가격변화와 같은 내부변화,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에너지 이용과 같은 외부변화에 민감하므로 관광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은 위험한 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관광사업은 다국적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관광 대상국은 외부투자의 기술 및 비용, 대가, 지불요구에 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종속 관계를 발생시킨다.

관광지가 가지는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편익과 부정적 비용의 경제적 영향이 관광의 이해관련자와 비 이해관련자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본다.

관광개발은 잠재적 토지의 가치를 높여 놓지만 토지를 외부인에게 팔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그 토지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그 지역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E. Inskeep, 1991).

(2)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수용지역사회의 주민과 관광객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발생하는 인간영향이다.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영향에만 치중되어 왔고,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큰 주목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연구되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최초였다.

Pearce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직업형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영향, 소비패턴의 변화, 관광객에 대한 편익과 같은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Mathieson과 Wall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사회적 쾌적성, 단체의 회원, 개인의 안정과 사생활, 심리적 특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Doxey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주민의 전반적인 수용태도를 행복감의 단계, 무관심의 단계, 분노의 단계, 적대감의 단계, 묵인의 단계와 같은 5단계로 지표화 하였다(G. V. Doxey, 1976).

연구지역을 보면 특정의 소규모 인종집단의 사회나 작은 나라, 또는 제3세계국가에 편중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안에 있는 제4세계 또는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소규모집단에 대한 연구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 사회·문화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사회구조의 분화에 의한 농업에서 서비스분야로 고용이 전환되며, 농업이 근대화됨으로써 생활수준의 격차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타 지역 사람들과의 친선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개발로 인하여 전통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애향심이 진작되며,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녀교육의 민주화로 가족구조가 근대화된다.

한편 인간의 본질적 변화에의 욕구에 따라 여가활동기회의 다양화 및 확대에 의해 새로운 자연이나 문화에 접하게 됨으로서 인간의 변화 욕구를 최대한 만족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 온다(김충호, 1989).

Jafari는 교육적 효과, 국제평화이해, 사회·인종·종교적 타파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원주민 문화의 이해, 새로운 사상의 도입, 전통예술의 발전, 문화교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적 주체성 강화와 문화발전, 전통예술이 부활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Swain은 관광객의 수요가 전통문화의 보전을 발전시켜 관광이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구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나. 사회·문화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

Jafari는 문화적 불이해, 외국인 혐오증, 문화·종교·예술의 상품화, 전시효과, 매춘, 문화접변, 범죄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Travis는 문화의 타락, 문화의 상품화, 도박, 알콜리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갈등을 야기하며, 전통문화의 파괴 및 상업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관광개발의 결과로 관광지외 공예품과 수공예품은 스타일·형태·생산취지에서 변화가 생긴다. 원래는 종교적 또는 의례적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공예품이 지금은 관광 상품용으로 생산이 된다. 따라서 관광은 가짜 전통공예품의 축진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3) 관광의 환경적 영향

관광개발사업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기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민족사적 입장에서 후세에 남겨주어야 할 자원보존 측면에서 환경보호는 여가공간의 합리적인 개발과 조화 있는 국토이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다.

환경적 영향은 이전에는 경제적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독립된 차원으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관광여향이다. 특히, 종래에 자원보존, 환경오염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생태관광 개념이 대두되면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고, 시각 환경의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다.

Bystranowski는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환경보전을 옹호하는 것 사이에 세 가지의 다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첫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분리된 채로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변화 때문에 오래 지속 될 가능성은 없으며, 대부분 공생적 관계나 갈등관계에 의하여 계승이 된다. 둘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상호의존적이거나 공생적 관계를 취한다. 셋째, 관광과 환경보전은 갈등관계에 있다. 특히, 관광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Cohen은 관광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관점은 편익적 측면과 훼손적 측면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관광지 이용과 개발의 강도, 생태계의 탄력성, 관광개발업자의 관광에 대한 태도, 관광개발에 의한 변형의 성격을 지적하였다(E. Cohen, 1978).

가. 환경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

관광은 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촉진시키는데, Alexander의 연구에서는 매력성을 가진 마을은 주된 관광자원이 되며, 마을단장으로 추가적인 매력을 더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관광은 오래된 건물과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관광편익시설 및 여가시설로 변형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관광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기 위해 행정력의 도입과

계획적인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통제수단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다. 유럽에서는 교통수단을 제한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야생 동물공원 내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나. 환경적 영향의 부정적인 측면

관광은 각종 오염을 발생시킨다. 관광활동으로 토양이나 식물의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생태계에도 변화를 야기하며, 관광자에 의한 사적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관광개발로 인한 지형, 지세의 변화 등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의 쓰레기 등 폐기물 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관광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소음문제 등의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며, 지역미관과 어울리지 않은 관광시설의 건설로 인한 심미적 부조화, 관광지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팽창, 일시적인 관광자 급증으로 인한 시설의 과밀 및 혼잡 문제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관광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관광개발의 결과 관광자의 환경에 대한 접근증가 및 이용활동의 강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환경적 수용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관광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관광의 현상은 매우 다양하고, 관광영향연구에 대한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나, 주로 경제적 및 문화인류학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야가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관광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매닝(Manning)에 의하면, 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고용 창출, 외화획득, 자본과 전문가의 유입 등 관광의 편익을 묘사하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약물, 매춘, 도박의 도입, 인종주의, 심리적 식민주의, 문화적 제국주의 등 관광의 해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경제학자와 문화인류학자는 접근 방법이 다른데, 문화인류학자는 과거를 황금의 시대로 설정하고 현대사회는 타락을 견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경제학자는 미래의 언젠가에 황금의 시대가 있으며 그것은 관광개발의 덕택으로 도달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광의 편익이 매우 적고 대개 비토착 집단에게 유리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편익

의 애매모호함을 조사하는 반면 경제적 접근은 기술적 방식에 입각하여 관광개발을 본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린우드(Greenwood)는 관광을 다루는 경제학자와 계획가들은 지역문화를 고려할 때 첫째, 자연자원으로 보거나 둘째, 공연되는 부분으로서 평가하여 전적으로 호텔객실, 술, 휘발유, 기념품 구매의 흐름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네스코의 한 보고서는 경제학자들은 관광을 급속한 개발을 위한 비교적 손쉬운 수단으로 보고 대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토착문화와 사회의 보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관광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밝혔다.

코헨은 관광사회학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은 다음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첫째, 과정적 요소로서 관광은 복합적 덩어리이므로 연구는 과정적인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후관계적요소로서 관광이 지리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일어나므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자적 요소는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라번에 의해 적절히 지적되었듯이 관광인류학은 첫째, 관광자와 관광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한 연구 둘째, 원주민과 관광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관광지국가의 사회에 대한 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였다.

인류학적 측면에 있어 주된 관심은 문화접변에 있으며 인간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것과 그것의 비교론적 방법에 있다고 본다. 그라번도 만일 관광인류학의 주제가 다른 제도(종교, 친족, 층화, 법 류 등)에 대한 인류학의 세계적이고 비교적인 영역에 진실로 어울린다면 관광인류학은 교차 문화적(cross-cultural)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누네츠에 따르면 인류학자는 현지조사에서 원주민과 충분한 신뢰감을 형성해야하고, 원주민과 관광자 사이의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는 ‘두 마리의 말을 타 사람’(Roman rider)과 같이 균형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참여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파리(Jafari)는 문화·인류학의 연구방식으로 국내자적(emic)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내·국외자적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학적 연구방식을 가장 간결히 설명한 표현인 것 같다. 1980년대 들어서야 관광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적인 수준에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헌조사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이 공급자적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습화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어

져 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관광개발의 많은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결과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광영향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접촉으로 출현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코헨, 로빈슨, 피잠 등은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접근방법으로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의 행태적 특성 및 지역사회와 관광객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효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4. 관광영향 지각

지각이란 오감을 통해 외부의 환경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거나 또는 인지의 의미 즉,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 현재 및 미래의 인간행태를 연결시켜주는 각성과정이나 사고과정도 포함하는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김남조, 2001; 임승빈, 1999).

관광영향이란 관광지주민과 관광객들간의 상호접촉으로 출현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코헨("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 *Social Research*, 1972), 로빈슨, 및 피잠 등은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접근방법으로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관광지주민들의 행태적 특성 및 지역사회와 관광객들간의 교호작용에 의한 상호효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고 나서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변화해가는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식과 특정관광지에서의 관광객과 관광지주민간의 접촉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연구의 근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Perdue, Long, and Allen(1990)의 연구는 관광으로부터 얻는 편익변수를 통제한 후, 특정 관광개발정책 또는 추가관광개발을 지지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부분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갖는지,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Perdue, Richard R., Patrick T. Long, and Lawrence R. Allen, 1990).

한편, 피어스는 관광지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비대칭

성”(social asymmetry)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매치슨과 월은 관광객과 관광지주민 간의 관계는 불균형적, 비형평성적 관계라고 보고 있다(John A. Pearce II, 1982).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각과는 달리 압은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에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상호간 이점을 배우고 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이로인한 관광객을 무조건 배격하고 감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의 비대칭적 또는 불균형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John Ap, 1992).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시각 연구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시각연구(김남조, 2001; 고동완, 2001; Brunt & Courtney, 1999; Tomljenovic & Faulkner, 2000; Tosun, 2002 등)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시각연구가 있다(Carmicheal, 2000; David & Laura, 2001; Lee & Back, 2003; Yoon, Gursoy & Chen, 2001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관광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indberg & Johnson, 1997; Akis, Peristianis, Warner, 1996; Lankford, 1994),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전경수, 1987; Greenwood, 1977)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Liu & Var, 1996; Cohen, 1988; 박석희, 1987).

Cater(1987)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많은 지역이 관광을 경제적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을 고려한다고 보고 있다(Cater, E. A, 1987). Liu and Var(1986)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주민이 지각된 금전적인 혜택 때문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몇몇 연구들은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경제적 획득을 과대평가 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Liu, J. C., and T. Var, 1986)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상태가 부정적으로 인지될수록 주민의 반응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안 좋은 경제적 상황은 혜택의 최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발생시킬 것이다.

Gursoy, Jurowski, and Uysal(2002)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상태와 지각된 혜택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경제상태와 지각된 비용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혜택을 보다 크게 평가하고, 비용을 축소하고 관광개발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ogan Gursoy, Claudia Jurowski and Muzaffer Uysal, 2002).

그간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초점은 관광영향의 인식이 관광지주민의 관광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광객과의 접촉량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느낌의 정도에 따라 관광에 대한 기대감 역시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광

개발로 인한 영향의 평가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관광지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의 인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장성수, 1995).

첫째, 관광지주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우선 직업의 관광 직·간접 관련성의 유무,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경험 정도 등 경제적 의존·비의존 형태에 따라 관광영향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객들과의 접촉정도를 알 수 있는 관광지와 거주지 간의 근접성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광지와 근접성이 높을수록 관광영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이 높으며, 근접성이 낮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지각을 설명하는 개념적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주민의 지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던 이론적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기술된다.

1)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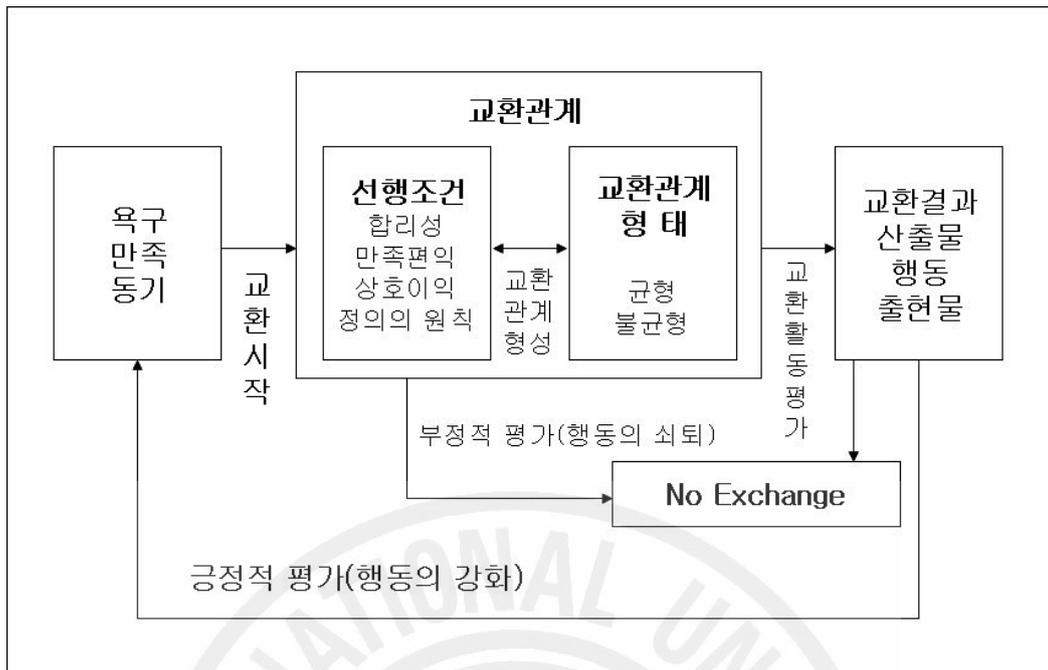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각을 설명하기 위한 적당한 체계(framework)로서 Perdue, Long & Allen(1990)에 의해 간단하게 언급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AP, 1990; Nash, 1989; Napier & Bryant, 1980; Perdue, Long & Allen, 1990). 사회적 교환이란 교환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앞으로 언젠가는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관계이다. 사회적 교환이 경제적 교환과 다른 점은 교환으로 인해 받은 편익과 이에 대한 비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한 모델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가치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평가와 추가관광에 대한 지지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경제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림2-3>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들도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King, Pisam, & Milman, 1993; Pisam & Milman, 1998; Perdue, Long & Allen, 1990; Shluter &

Ver, 1988)

Ap(1992)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관계에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사이의 자원의 교환(exchange of resources)이 높고 균형을 이루거나, 또는 불균형 관계라 하더라도 주민 행위자에게 높을 때 지역주민들은 관광영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kimore(1975)는 사람들은 결과가 가치 있을 때, 교환에 의해 더 나은 것을 얻는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그들이 지각한 교환의 비용이 대가보다 크지 않을 때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Tumer(1986)는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response)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론을 적용하여 왔는데,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 이론은 적용되어 왔다(King, Pisam, & Milman, 1993; Pisam & Milman, 1998; Perdue, Long & Allen, 1990; Shluter & Ver, 1988).

정리해보면, 사회교환에서 개인은 다음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될 때 교환에 관여하게 된다(Skimore, 1975). 첫째, 비용의 결과가 가치 있을 때 둘째, 교환이 가치 있는 편익을 가져오게 될 때 셋째, 지각된 비용이 지각된 편익을 초과하지 않을 때이다.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설명하는 적절한 체계로서의 사회교환이론의 장점은, 이것이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 모두를 설명할 수 있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수준에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Ap, 1992). 이 이론은 관광활동이 이루어진 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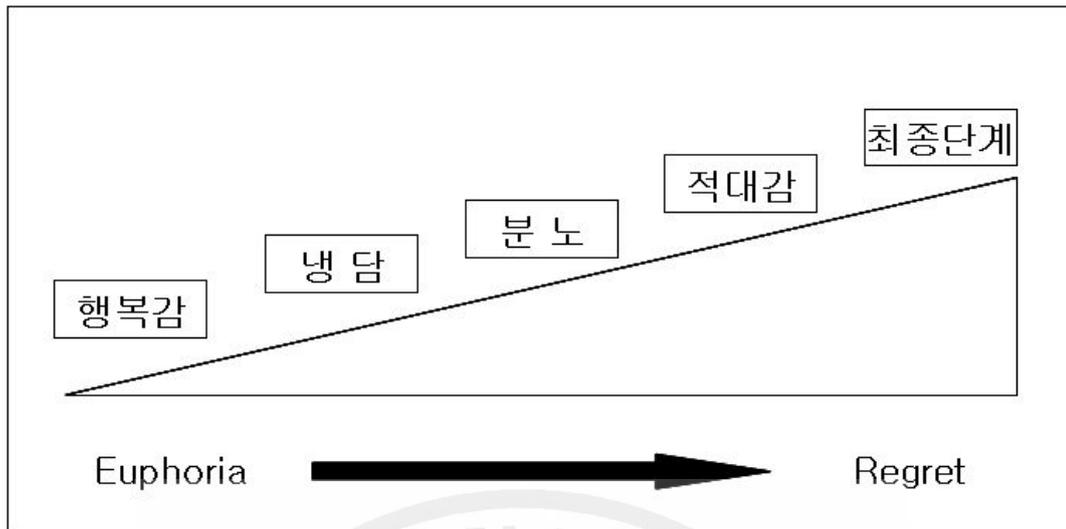
<그림 2-2> 사회교환이론 모델

자료 : 정명희(2002), '새로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변화에 관한 연구', p.20. 재인용

2) 관광지개발주기 이론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각을 지역 내의 관광개발수준과 관련하여 연구하여 왔다(Butler, 1980; Cooke, 1982; Doxey, 1975; Getz, 1983; Haywood, 1986; Williams, 1979).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광지가 개발되고 나서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변화 해가는 과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지개발 단계에 따라 처음에는 관광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분노나 회피로 변하게 된다. Doxey(1976)는 <그림 2-4>과 같이 그의 irridex model에서 행복감(euphoria), 냉담(apathy), 분노(annoyance), 적대감(antagonism), 그리고 최종단계(final level)의 5단계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림 2-3> Doxey 의 Irridex 모델(1975)

자료 : 정명희(2002), '새로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변화에 관한 연구', p.21. 재인용.

그러나, Doxey의 이론은 개발 전 단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발 이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Doxey 이론은 관광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응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 Doxey의 이론만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Allen(1988)등은 지역사회(host community)에서 관광의 발전정도와 관광개발 영향의 지각 정도에는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관광지개발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p와 Crompton(1993)은 관광지가 주민이 관광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인 포용(embaracement)에서 인내(tolerance), 적응(adjustment), 쇠퇴(withdrawal)의 단계의 4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특정 관광지 지역에서의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태도를 관광객과의 접촉 수준에 따라 설명하려는 연구도 있어왔다. 즉, 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지각하는 사회적 수용력은 다를 수가 있고(Long, Perdue and Allen, 1990; Madrigal, 1993)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영향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수용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지만 Long, Perdue and Allen(1990)은 한 지역의 소매 30% 이상이 관광산업에서 나오게 될 때를 사회적 수용력이 걱정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Butler의 관광지 주기모형(tourist area life cycle model)에 의하면 관광지는 개척(exploration), 관여(invovement), 발전(development),

안정(consolidation), 침체(stagnation), 쇠퇴(decline)의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Butler는 관광지개발 단계에 따라 관광지의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도 변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침체” 단계는 관광객 수가 아주 적고 관광활동이 거의 없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안면도의 경우 강한 계절성 관광지이며,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관광수요가 많지 않던 지역이었으므로 해양리조트의 개발로 서서히 관광이 발전하기보다는 일시에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자연휴양림과 해변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져 온 지 꽤 오래되어 지역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개발의 단계는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분화 접근법

관광지개발주기 이론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지각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같은 관광지 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매우 복잡하고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Wall, 1983). Lankford와 Howard(1994)는 Doxey(1975)의 Irridex 모델이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반응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분화 접근법(segmentation approach)을 주장하였다. 이는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Madrigal(1993)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각은 고용여부(employment)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Liu와 Var(1986)는 반대로 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검증하였다.

이 밖에도 인구통계학적, 개인적 이익 등에 따른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각과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결과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단편적인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지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과는 다른 관광시설물이나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주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관광형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의견의 세분화 접근법은 앞으로의 추가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광개발에 따른 마케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4> 관광영향 지각요인 추출항목

관광영향	지각형태	항 목
경제적 영향	긍정적 지각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주민의 고용증대에 기여한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지역의 조세수입이 증대된다
		공공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된다
	부정적 지각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된다
		생활비용 및 재산세가 증가된다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된다
		공공 생활기반시설의 과부하 된다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이 생긴다
사회·문화적 영향	긍정적 지각	주민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주민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개선된다
		생활양식 및 문화 이해 교류가 확대된다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지각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증진된다
		교통사고 및 체증이 증가된다
		범죄 발생이 증가된다
		도박 등 불법적 게임이 성행한다
		지역 고유문화의 파괴가 생긴다
환경적 영향	긍정적 지각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유발된다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지역의 외관(경관)이 향상된다
		지역 이미지가 개선된다
	부정적 지각	역사적 건축물·기념물의 보존 정비가 증진된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생긴다
		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경관 훼손이 생긴다
		지역사회의 혼잡이 증가된다
		쓰레기 및 소음이 증가된다

<표 2-4>는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의 추출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본 이러한 항목들을 사례 연구대상지역에 적용시켜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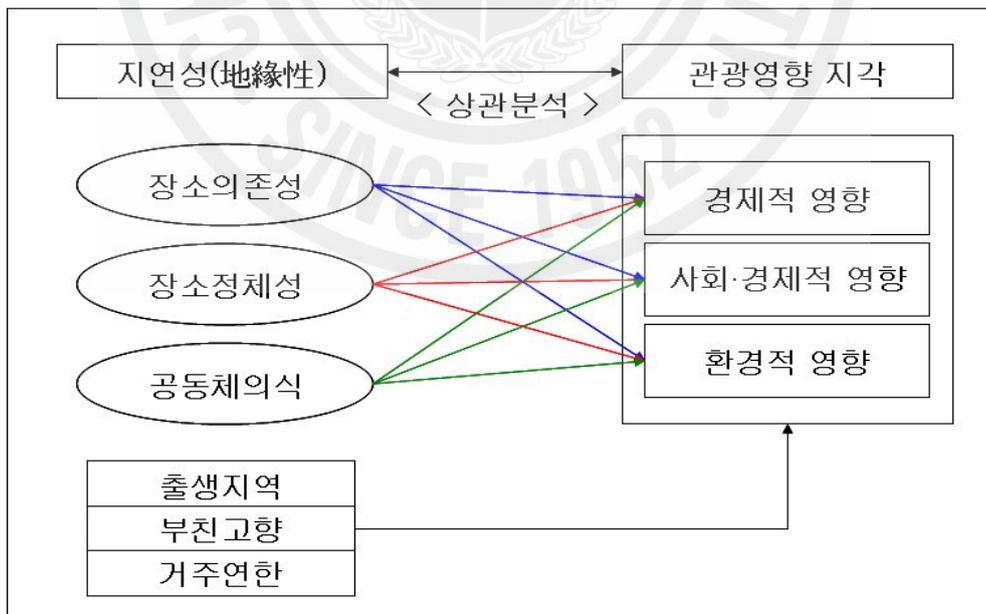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분석의 틀 및 측정항목의 개발

1. 분석의 틀 구성

본 연구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地緣性: attachment level)에 따라 관광영향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연성이 관광영향 지각의 세가지 요인, 즉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주민의 출생지역과 거주연한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그림 3-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사례연구대상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일대를 선정하였다.



[그림 3-1] 분석의 틀

2. 측정항목의 개발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되었다. 먼저 지연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광영향 지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정항목들을 폭넓게 추출하였으며, 그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혼동이 되는 항목과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항목들을 제외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제2절 연구기설의 설정

연구가설은 앞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상관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 지각의 각 요인은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현재 관광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복합개념과 관광영향 지각의 세 요인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가설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환경적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의 요인인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과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인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이다. 특히 각 요인들 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관광영향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또는 적은 영향,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치상으로 요인들간의 영향의 크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상관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 혈통 또는 거주연한 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을 중심으로 T검증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관광영향 지각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가설 2>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출생지역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부친고향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와 혈통,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T검증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면 각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

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용어의 개념과 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지연성 (地緣性 : attachment level)

본 연구에서 지연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지연성과는 달리 일정한 공간적 영역 속에서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을 말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존성,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친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를 느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는 의존성,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인 친분과 유대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종합적인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성의 정도는 Likert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2) 관광영향

본 연구에서 관광영향은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 얻어진 정의를 사용하였다. 즉, 관광영향(tourism impact)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을 매개로 하여 관광활동(김영양, 1991)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함하는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관광개발의 영향(impact of tourism development)과는 동일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영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관광영향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관광영향의 정도는 Likert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3) 지각

본 연구에서 지각이란 관광개발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관심을 통하여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는 지각 대상요인을 관광영향 중 경제적(긍정적·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긍정적·부정적) 영향, 환경적(긍정적·부정적) 영향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관광영향 지각

본 연구에서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따른 유·무형의 제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인식이 곧 지역주민들의 인식 혹은 지각이라 할 수 있다(고동완, 2001). 관광영향 지각은 보통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한다. 본 연구에서도 관광영향지각을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이를 Likert 5점 등간척도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관광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설문에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5문항, 지연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 질문 12문항, 관광영향지각에 대한 질문 29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의 내용 및 구성 그리고 척도유형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수	설문항목	척도
관광에 대한 일반 질문	5	I. 1-5	Likert 5점 등간척도
지연성	12	II. 1-12	Likert 5점 등간척도
관광영향 지각	29	III. 1-29	Likert 5점 등간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11	IV. 1-8	명목척도, 서열척도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성산 일출봉 및 섬지코지 일대의 지역

주민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대상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지역은 오랜 기간동안 관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가지는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성산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의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임의 표본추출을 이용하여 자료를 직접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는 자료수집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표본추출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는 이용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결정은 연구나 연구변수에 따라 필요한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와 관련된다. 표본의 크기는 많을수록 좋지만 대부분 200부 이상의 응답자의 수라면 회귀분석을 위해 타당성을 갖는 표본의 수로 인정된다.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20부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07년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175부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총 495부 가운데 부정확하게 응답한 39부를 제외하고 459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2.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기술통계 분석 중 빈도분석, 내적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들로 축약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 지각요인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연성 요인과 관광영향 지각요인의 측정변수가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하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신뢰도계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설문항목이 측정변수를 측정하는데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직각회전방법을 통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요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관광지 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지역주민의 출생지역과 거주연한을 중심으로 관광영향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조사대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11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은 총 495부를 실시하였고 이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하여 45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유효 표본 중 구성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218명, 여자가 238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지는 제주도 지역출신이 338명, 그리고 타 지역은 118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출생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제주도 지역출신이 392명, 타 지역 출신이 94명으로 나타났다. 관광관련 업무에서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8명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인 168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에 대해서는 30대가 163명, 40대가 151명, 50대 이상이 88명, 30대 미만이 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소득에서는 20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대 300만원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부분에서는 대재 이상이 239명, 고졸 이하가 194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기간을 보면 30년에서 39년, 20년에서 29년 40년에서 49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기타, 서비스직, 자영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별	남 자	218	47.8	학력	고졸 이하	194	42.5
	여 자	238	52.2		대재 이상	239	52.4
출생지	도 내	338	74.1		대학원이상	23	5.1
	도 외	118	25.9	거주 기간	1~9년	67	14.7
관광관련 업무	있 다	168	36.8		10~19년	64	14.0
	없 다	288	63.2		20~29년	81	17.8
나이	30대 미만	54	11.8		30~39년	123	27.0
	30~39	163	35.7		40~49년	79	17.3
	40~49	151	33.1	50년 이상	42	9.2	
	50대 이상	88	19.4	직업	농 업	8	1.8
월소득 (단위:만원)	100 미만	40	8.8		수산업	16	3.5
	100~199	108	23.7		자영업	103	22.6
	200~299	168	36.8		서비스직	144	31.6
	300~399	82	18.0		공무원	8	1.8
	400 이상	58	12.7		사무직	24	5.3
부모 출생지	도 내	362	79.4	기 타	154	33.8	
	도 외	94	20.6				

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이나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그 측정결과가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신뢰도 분석결과

이론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수정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Cronbach- α
장소 의존성	내 삶의부분	3.989	0.918	0.647	0.931	0.883
	많은 이야기	3.929	0.946	0.670	0.931	
	자랑스러움	3.886	0.909	0.803	0.926	
	특별한곳	3.925	0.964	0.805	0.926	
장소 정체성	일에 적합	3.401	1.103	0.598	0.934	0.789
	생활의중심	3.736	1.016	0.774	0.927	
	웁기면섭섭	3.721	1.020	0.666	0.931	
공동체 의식	많은사람을알	3.901	0.942	0.772	0.927	0.878
	친인척많음	3.546	1.260	0.618	0.934	
	모임적극참여	3.550	1.071	0.740	0.928	
	친분관계유지	3.868	0.958	0.778	0.927	
전체 Cronbach- α : 0.937						

신뢰성은 측정된 결과치의 정확성,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의존가능성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대상물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 수 있고, 변수를 측정하여도 항목 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형태법, 반복법, 내적일관성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기준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ronbach' Alpha 계수의 값이 0.6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0.80 이상이면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복합개념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x5인 '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좋다.'라는 항목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별로의 Cronbach' Alpha의 값을 살펴보면, 장소의존성의 경우는

Cronbach' Alpha 값이 0.883, 장소정체성의 경우는 Cronbach' Alpha 값이 0.789, 공동체 의식의 Cronbach' Alpha 값이 0.878가 나왔으며, 그 후 전체 Cronbach' Alpha 값은 0.93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신뢰도 분석결과

이론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수정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Cronbach - α
경제적 측면	경제 활성화	3.675	1.064	0.709	0.938	0.912
	고용증대	3.607	1.102	0.710	0.938	
	소득증대	3.563	1.087	0.690	0.938	
	조세수입증대	3.563	1.029	0.662	0.938	
	공공시설확충	3.660	1.050	0.719	0.938	
	토지가격상승	3.539	0.946	0.705	0.938	
	재산세 증가	3.506	0.899	0.631	0.939	
	서비스가격상승	3.557	0.931	0.641	0.939	
	기반시설과부하	3.164	0.977	0.414	0.941	
자본외부유출	3.337	1.054	0.397	0.941		
사회·문화적 측면	생활의 질 향상	3.513	0.987	0.675	0.938	0.884
	시설이용확대	3.451	0.991	0.728	0.938	
	서비스개선	3.552	1.034	0.741	0.937	
	문화교류확대	3.473	1.026	0.701	0.938	
	전통문화발굴	3.302	1.083	0.673	0.938	
	문화활동증진	3.418	1.045	0.709	0.938	
	교통사고증가	3.322	0.985	0.549	0.939	
	범죄발생증가	3.252	0.963	0.521	0.940	
	불법게임성행	3.383	1.083	0.437	0.941	
	고유문화파괴	3.344	1.036	0.463	0.940	
갈등유발	3.116	0.999	0.390	0.941		
환경 측면	환경보전기여	3.048	0.968	0.430	0.941	0.826
	경관향상	3.247	1.030	0.532	0.940	
	이미지 개선	3.504	0.963	0.591	0.939	
	보존정비증진	3.278	1.020	0.548	0.939	
	환경파괴	3.296	1.017	0.422	0.941	
	경관훼손	3.355	1.014	0.393	0.941	
	혼잡증가	3.307	0.977	0.491	0.940	
	소음증가	3.561	1.010	0.505	0.940	
전체 Cronbach- α : 0.942						

성산지역의 관광영향 지각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Cronbach' Alpha값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은 Cronbach' Alpha 값이 0.912가 나왔고, 사회·문화적 측면은 Cronbach' Alpha 값이 0.884, 환경적 측면의 Cronbach' Alpha 값은 0.826이 나왔으며 전체 Cronbach' Alpha 값은 0.942가 나왔다.

신뢰도 분석 결과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각 요인들 그리고 관광영향지각과 각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어 변수들 간에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용타당성이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써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개념타당성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 자체의 타당성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 의한 개념타당성 평가는 서로 상이한 개념에 대하여 각각 여러 가지의 측정수단(항목)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후, 각 항목들에 의한 측정치의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로 나온 요인들이 원래 의도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채서일, 전게서, p.365).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연구 분석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눈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배경 하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로 진행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변량 분석방법의 하나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되며, 기본원리는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내어, 요인들 간에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분석은 정보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나 잠재체계를 발견, 활용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직각회전 중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적용하여 '1' 이상이 되는 요인에 대해 요인화 하였다. 이때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이 클수록 그 요인이 전체 요인구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총 분산 설명력(total variance explained)은 애착도 부분에서는 74.197%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영향지각 부분에서는 74.084%가 나타나 모두 매우 양호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와 요인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요인이 해당변수를 설명해 주는 정도를 의미하여 공통분산(communality)은 총 분산 중에서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비율을 의미한다. 요인별 요인 부하량, 공통분산, 고유치(eigen value) 값은 <표 4-4>,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4-4> 관광지 주민 지연성 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지연성 요인			공통성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	
내 삶의부분	0.798			0.717
많은 이야기	0.811			0.750
자랑스러움	0.652			0.756
특별한 곳	0.736			0.792
일에 적합		0.841		0.792
생활의 중심		0.510		0.681
웁기면 섭섭		0.728		0.699
많은 사람을 앓			0.745	0.789
친인척 많음			0.734	0.634
모임 적극 참여			0.753	0.751
친분관계 유지			0.780	0.801
누적분산	59.458	67.396	74.197	
		74.197		
Kaiser-Meyer-Olkin(KMO) 측도		0.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357.780
	유의확률			0.000***

***p<0.001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값은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부분이 0.927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은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부분이 3357.780이고 유의확률은 $p < 0.000$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총 3개의 요인(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표 4-5> 관광지 주민 관광영향 지각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지각요인			공통성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 활성화	0.903			0.849
고용증대	0.908			0.844
소득증대	0.911			0.847
조세수입 증대	0.876			0.795
공공시설 확충	0.838			0.769
토지가격 상승	0.636			0.711
재산세 증가	0.722			0.699
서비스가격 상승	0.704			0.683
기반시설 과부하	0.833			0.695
자본외부 유출	0.759			0.577
생활의질 향상		0.823		0.691
시설이용 확대		0.853		0.760
서비스 개선		0.894		0.826
문화교류 확대		0.902		0.822
전통문화 발굴		0.868		0.755
문화활동 증진		0.876		0.781
교통사고 증가		0.785		0.658
범죄발생 증가		0.851		0.752
불법게임 성행		0.830		0.692
고유문화 파괴		0.806		0.658
갈등유발		0.760		0.580
환경보전 기여			0.850	0.725
경관향상			0.865	0.767
이미지 개선			0.837	0.718
보존정비 증진			0.844	0.717
환경파괴			0.828	0.714
경관훼손			0.879	0.772
혼잡증가			0.873	0.776
소음증가			0.854	0.738
누적분산	39.580	56.154	63.612	
		63.612		
Kaiser-Meyer-Olkin (KMO)측도	0.88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486.715
	유의확률			0.000***

***p<0.00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값은 관광영향 지각이 3486.715이고 유의확률은 $p < 0.000$ 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강신겸, 2001)에서는 3개의 요인(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제1요인을 “경제적 측면”, 제2요인을 “사회·문화적 측면”, 제3요인을 “환경적 측면”으로 명명하였다.

제3절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관광영향 지각과 지연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6>, <표 4-7>,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

<표 4-6> 관광영향 지각 중 경제적 측면과 지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지연성	장소의존성	경제적 측면	0.349	0.029	11.900	0.000***
	장소정체성		0.174	0.029	5.950	0.000***
	공동체의식		0.189	0.029	6.457	0.000***
상수 = 3.518 $R^2 = 0.326$ F-value = 72.897 Prob = 0.000***						

*** $p < 0.001$

관광영향 지각 중 경제적인 측면과 지연성을 분석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지연성의 세 가지 요인이 경제적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 독립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는 0.326으로 종속변수인 경제적 측면을 32.6%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성도 F값 72.897에 대한 확률치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중 경제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 즉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장소의존성은 0.349로 나타났으며, 장소정체성은 0.174로 나타났고, 공동체의식은 0.189로 나타나 장소의존성이 경제적인 측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 장소정체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지연성 요인 중 장소의존성 부분이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인 측면을 지각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지각의 정도를 올리려면 장소의존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7> 관광영향 지각 중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지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지연성	장소의존성	사회· 문화적인 측면	0.272	0.029	6.555	0.000***
	장소정체성		0.270	0.029	6.505	0.000***
	공동체의식		0.272	0.029	6.540	0.000***

상수 = 3.376 R² = 0.221 F-value = 42.685 Prob = 0.000***

***p<0.001.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 중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지연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독립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²)는 0.221로 종속변수인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22.1%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성도 F값 42.685에 대한 확률치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중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 즉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장소의존성은 0.272, 장소정체성은 0.270, 공동체의식은 0.272로 세 요인이 모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영향 지각 중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지각을 높이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지연성의 세 요인을 모두 신경써야 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겠다.

<표 4-8> 관광영향 지각 중 환경적인 측면과 지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지연성	장소의존성	환경적인 측면	0.227	0.030	5.129	0.000***
	장소정체성		0.128	0.030	2.882	0.004**
	공동체의식		0.212	0.030	4.786	0.000***
상수 = 3.325 R ² = 0.113 F-value = 19.172 Prob = 0.000***						

p<0.01, *p<0.001.

관광영향 지각 요인 중 환경적인 측면과 지연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독립변수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²)는 0.113으로 종속변수인 환경적인 측면을 11.3%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의성도 F값 19.172에 대한 확률치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중 환경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 즉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살펴 보면, 장소의존성은 0.227로 나타났으며, 장소정체성은 0.128, 공동체의식은 0.212가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지연성의 세 요인은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 중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중에서 장소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소의존성과 공동체의식의 요인은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가설 2>의 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9>, <표 4-10>, <표 4-11>, <표 4-12>,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

<표 4-9>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T-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경제적 측면	도 내	3.555	1.045	0.587	0.539
	도 외	3.633	0.765		
사회·문화적 측면	도 내	2.995	1.218	3.126	0.000***
	도 외	3.500	0.698		
환경적 측면	도 내	3.118	1.103	2.192	0.008**
	도 외	3.451	0.733		

** p<0.01, *** p<0.001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내와 도외로 구분된 출생지역에 따라서는 사회·문화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관광영향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출생 지역주민보다 도외지역 출생 지역주민들의 평균이 높게 나와서 관광영향 지각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관광지 주민의 부친고향과 관광영향 지각간의 T-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경제적 측면	도 내	3.607	0.745	4.345	0.000***
	도 외	3.261	0.742		
사회·문화적 측면	도 내	3.408	0.717	1.831	0.068
	도 외	3.282	0.617		
환경적 측면	도 내	3.364	0.683	2.244	0.026*
	도 외	3.210	0.625		

* p<0.05, *** p<0.001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지 주민의 부친고향 (아버지가 안계시는 경우 어머니의 고향)에 따라서는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관광영향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경제적 측면의 분산분석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경제적 측면	10년 이하	3.575	1.375	15.773	0.000***	ab
	10~19년	3.583	0.636			b
	20~29년	3.427	0.699			a
	30~39년	4.211	0.433			c
	40년 이상	3.299	0.617			a

*** p<0.000

주 : Duncan's 다중범위검증의 결과로 집단 간의 차이를 a<b<c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 중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F값에 대하여 p<0.000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사후 검증을 살펴보면 거주 기간이 30~39년이 평균이 제일 큰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0~19년 사이가 두 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20~29년, 40년 이상이 제일 작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거주연한이 10년 이하의 집단이 작은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같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부정적 측면에서는 30~39년이 평균이 제일 큰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0년 이하가 두 번째 집단, 40년 이상이 제일 작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10~19년, 20~29년 사이의 집단이 작은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같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30~39년을 거주한 집단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장 큰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20~29년, 40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적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표 4-12>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사회·문화적 측면의 분산분석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회·문화적 측면	10년 이하	3.491	1.410	14.023	0.000***	ab
	10~19년	3.714	0.911			b
	20~29년	3.197	0.882			a
	30~39년	4.095	0.401			c
	40년 이상	3.227	0.581			a

*** p<0.000

주 : Duncan's 다중범위검증의 결과로 집단 간의 차이를 a<b<c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지각의 요인 중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F값에 대하여 $p < 0.000$ 에서 유의한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분석을 살펴보면 거주연한이 30~39년인 집단이 가장 평균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0~19년 사이가 두 번째 집단, 20~29년, 40년 이상의 집단이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집단이 제일 작은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같이 속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거주연한이 30~39년 사이의 집단이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20~29년, 40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인식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 되었다.

<표 4-13>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과 관광영향 지각 중 환경적 측면의 분산분석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환경적 측면	10년 이하	3.335	1.118	4.651	0.036*	a
	10~19년	3.714	0.595			b
	20~29년	3.197	0.886			a
	30~39년	3.485	0.756			ab
	40년 이상	3.212	0.455			a

* $p < 0.05$

주 : Duncan's 다중범위검증의 결과로 집단 간의 차이를 $a < b$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관광지 주민의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 중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F값에 대하여 $p < 0.05$ 에서 유의한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연한이 10~19년 사이의 집단이 가장 큰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10년 이하, 20~29년, 40년 이상의 집단이 작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30~39년 사이의 집단이 작은 집단과 큰 집단에 같이 속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이 상호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산지역은 전체 495부의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으며, 이 중 대답이 불성실한 39부를 제외한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여자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출생지의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혈통에 관한 질문인 부모님의 고향을 물어본 경우 역시 제주도 지역이 약80%정도로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가족 중 관광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그 뒤를 이었고, 50대 이상의 경우가 다음이었으며, 20대의 경우가 가장 적은 빈도를 나타냈다. 월소득의 경우는 200만원대가 가장 많은 대답이 있었으며 1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는 대졸 이상의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30년에서 39년 사이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약 55%정도가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서비스직과 기타의 경우가 많았으며 자영업과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설의 채택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다.

<가설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설 1-1)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연성의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2)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3)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환경적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의 차이는 지연성의 모든 요인이 관광영향 지각의 세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도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전체 채택된 것을 볼 수 있겠다.

<가설 2>인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경우 T-검증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부분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설 2-1) '출생지역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중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세부 가설만이 채택되었다.

(가설 2-2) '부친고향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중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세부 가설만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2-3)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의 세 가지 측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경우 세부 가설 모두가 채택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가 부분채택된 것으로 결론지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례연구대상지역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표 4-21> 연구가설 채택여부의 정리

구분	연구가설	세부 가설		채택여부
<가설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연성 ↔ 경제적 측면	채택	채택
		지연성 ↔ 사회·문화적 측면	채택	
		지연성 ↔ 환경적 측면	채택	
<가설 2>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출생지역 ↔ 관광영향지각	부분채택	부분채택
		부친고향 ↔ 관광영향지각	부분채택	
		거주연한 ↔ 관광영향지각	채택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선행연구에서 나온 연구결과와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가설 1>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세 가지의 조사 결과 모두 일정부분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지연성, 그리고 관광영향 지각에 대한 부분은 서로 상호간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연성의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장소의존성과 경제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왔으며, 장소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영향은 미치고 있으나 영향의 정도가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은 서로 비슷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 2> ‘관광지 주민의 출생지역 및 거주연한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경우에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인 출생지는 사회·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과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혈통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요인으로 제시한 세 가지(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공동체의식) 요인 모두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광영향 지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부분은 관광개발이 진행될 때 경제적인 측면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바꿔서 말하면 관광개발 진행시 그동안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은 제외시키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는 현재까지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여러 요인 중 경제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관광개발을 수행한 민·관의 책임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관광영향 중 경제적인 부분을 최우선시하여 경제적인 부분이 만족되면, 다른 그 외의 영향은 도외시한 지역주민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연성의 일부인 출생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출신지역이 제주도일 경우보다 타 지역의 경우가 관광영향지각에 대하여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제주 출신은 지역의 변화를 더디게 받아 들이지만, 타 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부분)변화에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부친의 고향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위의 출생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친의 고향이 제주도일 경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연성이 관광영향 지각을 받아들이는데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거주연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관광영향 지각의 세 요인과 모두 영향을 주고받지만 환경적인 부분과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례연구대상지역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연구였기 때문에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관계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둘째, 사례연구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지연성에 관한 정확한 평가항목을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웠다.

셋째, 일회성의 설문조사에 의존하였던 관계로 인해 조사시점에서의 관광영향 지각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을 고려해 넣을 수 없었다.

넷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분석이 되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향후 연구를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례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할 경우 한 지역이 아닌 2곳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과의 관계를 검증할 경우 비교를 통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이론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례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성 설문조사로 끝나지 않고 같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여러 번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시점에서 관광영향 지각에 개입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통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 관광영향 지각이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 중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관광개발이 진행될 때 지역주민이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큰 지각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관광지 주민의 문화관광자원 개념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출생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그리고 거주연한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혈통부분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혈통, 즉, 부모의 출생지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따로 지각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해보면 특히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은 경제적인 부분이 주가 되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관광개발이 진행될 때나 관광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될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관광지 주민이 가장 많은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관광지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조금 더 돌아 갈 수 있게 하면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연구를 진행하여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광영향 지각의 요인이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요인으로 정리를 하여 분석을 하였지만 그 외에 더욱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지역인 성산지역이 특이한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연구해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이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을 단순히 12개 항목의 3개 요인과 문화관광자원 개념의 3개 항목으로만 정의를 하고, 또한 관광영향 지각에서도 29개 항목의 3개 요인으로만 정의를 한 점은 그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해 버렸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고 또한 주관식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지연성에 대한 부분과 관광영향 지각의 부분들에 대하여 관광지 주민이 느끼는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의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관광개발이 진행될 때 관광지 주민이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고용의 기회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관광개발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또한 관광개발이 진행되는 주민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개발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관광이 계속 진행되고 또한 2세·3세를 고려했을 때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본 연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각기 다른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각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연성과 관광영향 지각을 측정할 때 더욱 세부적이고, 정확한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국 내 문 헌]

- 강신겸,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고동완,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고양은, 제주도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규호,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적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남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참여, 한국관광연구원, 1998.
- 김남조,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한국관광학회 제 50차 학술발표논문집, 65-66, 2001.
- 김사현,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편익분석,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6호, 1982
- 김성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지표개발에 관한 조사서(1차조사), 1999.
- 김충호, 관광개발의 기본적 방향, 경기대학교, *경기대논문집* 제8집, 1980.
- 민창기, 소규모지역의 관광개발 모형정립을 위한 제언, *한양관광논총* 창간호, 1993.
- 박미정, 지역주민의 지연성이 메가이벤트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변우회 외, 온천지구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0권 제2호, 1998.
- 부만근,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사회발전연구 제14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98, 1998.
- 송재호, 지방화시대의 지역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송재호, 제주자유도지구상의 관광정책적 함의 : 시스템적조합과 지역사회 통합성, *관광경영학연구*, Vol.4 No.1, 1999.

- 송재호, 관광 지속가능성 측정: 제주도 사례, 관광연구, Vol.19. No.2, 2005.
- 신경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참여태도의 정향변수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여호근, 관광태도 결정요인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충기,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개장에 따른 개장전후의 지역주민 인식 변화와 저감,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2000.
- 이충기, 이봉구, 관여도에 따른 강원랜드 카지노이용객 특성비교, 관광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3.
- 이충기, 이봉구,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7권 제4호, 2003.
-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법문사, 2001.
- 장미경,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태도에 관한 연구 : 중문관광단지 인근 거주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성수, 관광지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11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5.
- 장성수,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지연성 척도, 한국관광학회 제50차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
- 전영철·정병웅,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을 통한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1권, 155-178, 1999.
- 정명희, '새로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변화에 관한 연구: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1999.
- 최규성,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최병길, 송재호, 김시영,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Vol, 20, 2004.
- 최승담, 지역관광개발의 실패와 편협한 사고, 손대현외 10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33~163, 1995.

표성수 외, 「최신관광개발·계획론」, 형설출판사, 1994.

홍대식, 「사회심리학(개정판)」, 박영사, 1986.

[외 국 문 헌]

Allen, L. R., P. T. Long, and R. R. Perdue and S. Kieselbach, The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16~21, 1988.

A, Mathieson and Geoffrey Wall, *Tourism : Economin,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 Longman, 1082

Ap, J.,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670, 1992.

Cooke, K., Guideline for Socially Apporopriate Tourism Development in Britain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21(1), 22-28, 1982.

E. Cohen,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5, 1978.

Evans, N., Tourism and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1, 1976.

Goudy, W. J., Further Considerations of Indicators of Community Attach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 181-92, 1982.

Gursoy, D., Jurowski, Claudia., & Uysal, Muzaffe.,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86, 2002.

G. V. Doxey, When Enough's Enough : *Heritage Canada*, Vol. 2,2, 1976.

Inskip, E.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Jamal, T. b. & Getz, D.,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 199, 1995.

- Jurowski, C., M Uysal, & Daniel R. Williams,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 1997
- Jurowski, C., M. Uysal, & D.R. Williams,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1997.
- Kaltenborn, B. P. Nature of Place Attachment: a study among recreation homeowners in Southern Norway, *Leisure Science*, 19: 175~189, 1997.
- Kasardam, D. & M. Janowitz,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9, 1974.
- McCool, S. & Martin,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 1994.
- Pearce, P. L, G. Mosearado and G. G. Ross, *Tourism community relationships*, Oxford: Elsevier Science Ltd, 1996.
- Perdue, R., T. Long, L. Allen: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596-598, 1990.
- Pizam, A. Tourist impacts: the social costs to destination community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Tourism Management*, 9: 199-212, 1978.
- Stephen, F. McCool & Steven R. Martin,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29, 1994.
- Stephen, F. McCool & Steven R. Martin,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94.
- Williams, D. R. B. Scott Anderson and C. D Mcdonald, M. E Patterson, Measuring place attachment : More preliminary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Level &
th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of Local Residents in a Tourist Region
-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Sung-san Area in Jeju -**

Kim, kwan-su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Yong-Bok

This study investigated to define the concept of attachment level of resident in tourist region and to verify the interrelation between attachment level and the perception of the tourism effects.

The residents of Sung-san in Jeju was selected as the object of research and tree analyses methods including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were used.

In this study, the attachment level of residents in tourist region involves the concepts which consists dependence, identity and social friendship and 'culture and tourism resources. which include birth place, heritage and years of resid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the tourism effects, especially is affected by the attachment level of residents in tourist region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tourism effects is mainly affected by the attachment level of residents.

Based upon the outcomes, this study suggests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are induced to have their support for the tourism development.



[부 록] 설 문 지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地緣性)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에 관한 연구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대학원생으로 성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지 주민의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들은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가 가지신 **지연성(地緣性)**이나 **관광영향**에 대하여 관심사나 고견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 논문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를 통하여 얻어지는 답변들은 순수 통계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학문목적으로만 이용됨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최 용 복 교수

연구자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 석사과정 김 관 수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지역에서 관광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귀하의 지역에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얻고 있지 않다. ② 얻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얻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얻고 있다.
3. 귀하의 지역에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② 기여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기여한다. ⑤ 매우 많이 기여한다.
4. 귀하의 지역에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개인소득을 어느 정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증대시키지 않는다. ② 증대시키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증대시킨다. ⑤ 매우 많이 증대시킨다.
5. 관광개발에 대하여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다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사는 이 지역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가 이 지역에 대하여 묻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지역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지역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섭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 지역에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 지역 내에서 친목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2) 주민고용 증대 기여	①	②	③	④	⑤
3) 주민소득 증대 기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조세수입 증대	①	②	③	④	⑤
5) 공공생활 기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6)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	①	②	③	④	⑤
7) 생활비용 및 재산세 증가	①	②	③	④	⑤
8)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①	②	③	④	⑤
9) 공공 생활기반시설의 과부하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	①	②	③	④	⑤

11)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12) 레크레이션 시설 주민이용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4) 생활양식 및 문화·이해교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도움	①	②	③	④	⑤
16)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증진	①	②	③	④	⑤

17) 교통사고 및 체증 증가	①	②	③	④	⑤
18) 범죄 발생 증가	①	②	③	④	⑤
19) 도박 등 불법적 게임 성행	①	②	③	④	⑤
20) 지역 고유문화의 파괴	①	②	③	④	⑤
21)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유발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환경보전 기여	①	②	③	④	⑤
23) 지역의 외관(경관) 향상	①	②	③	④	⑤
24) 지역이미지 개선	①	②	③	④	⑤
25) 역사적 건축물 기념물의 보존 정비 증진	①	②	③	④	⑤
26)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①	②	③	④	⑤

27) 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경관훼손	①	②	③	④	⑤
28) 지역사회의 혼잡 증가	①	②	③	④	⑤
29) 쓰레기 및 소음 증가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 ②여

2. 귀하의 나이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농·수·축산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공무원
⑥ 학생 ⑦ 주부 ⑧ 전문직 ⑨ 기타()

3-1 귀하의 직업은 관광관련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이 없다. ② 관련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련이 있다. ⑤ 많은 관련이 있다.

3-2 귀하의 가족 중 관광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의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상

5. 귀하의 가정의 평균 월소득은?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6. 귀하의 지역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년

7. 귀하의 출생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 ① 제주도 ② 제주도 이외 지역

8. 귀하 아버지의 고향(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고향)은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제주도 ② 제주도 이외 지역

※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